

2 종합

# 경영학과 조직행동론, 부정행위 의혹에 오프라인 복귀 녹화 판독 · IP 대조 조사...의심 학생 별도 재평가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서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영학과 전공필수 과목 <조직행동론>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돼 결국 대면 강의로의 전환이 결정됐다.

조직행동론 시험은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Zoom(줌)'에 접속해 시험을 치른다. 지난달 20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중앙도서관에서 부정행위 공모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중간고사 시험에서도 과 동아리 중심으로 집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 글이 추가로 올라왔다.

에브리타임 게시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정행위 방식은 동아리 단위로 동아리방에 모여 단체로 시험을 보는 행위였다. 또한, 줌의 아바타 기능을 활용해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시험에 응시했다고 한다. 우리신문에서 경영학과 소속 10

개 동아리에 입장을 요청한 결과, 3개의 동아리가 "사실 확인 결과, 단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없었다"고 답했다. 나머지 동아리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수강자들은 담당 교수에게 사실 검증과 시험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직행동론을 담당하는 구자숙(경영학) 교수는 "시험 하루 전 임의로 시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존 시험 방식을 유지한 채, 부정행위 방지 절차를 추가로 도입해 지난 21일 기말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이후 구 교수는 부정행위자 조사에 나섰다. 우리신문과 만난 구 교수는 "녹화된 줌 화면을 판독하고, 시험 응시 장소와 IP 주소를 대조하는 등 정황이 의심되는 학생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대부분 학생이 부정행위를 부인한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해 성적을 별도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영학과 과목 <조직행동론> 시험에서 집단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강의는 대면 강의로 전환한다. (사진=대학주보 DB)

조사가 계속되며 해당 과목의 성적 처리 역시 지연됐다. 성적 열람 기간 마지막 날까지 성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성적 공시는 정정 기간 중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수강생은 성적 확인에 차질을 겪었다.

결국, 구 교수는 조직행동론 과목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고, 다음 학기에 열리는 강의를 대면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구 교수는 "학

생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로서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면 강의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하게 수업을 들어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사과의 말을 덧붙였다.

현재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는 트러스트라

이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교무처는 "기술적인 방안을 추가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교원-학생 상호 신뢰를 위한 윤리서약 및 시험 방법의 다양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수학습개발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면에서 계속 →

G7 성장형 과제는 경기도 내 핵심 산업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GX 자립형 과제는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기술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G7 성장형 과제에는 AI·빅데이터, 반도체, 양자, 디지털전환,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포함된다. GX 자립형 과제에는 소부장, 제조업, 콘텐츠, 농식품, 스마트팜, 디자인, 보건복지, 문화·예술이 포함된다. 홍 단장은 "기존 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이 GX"라며 "첨단산업 분야와 GX 분야를 나눠 해당 특성에 맞게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KnM+EDU 기술지원 부문에서는 G7·GX 맞춤형 투 트랙 체계를 마련했다. 수요 기반 공용 장비와 시제품 제작, 기술 자문, 실증 플랫폼을 통해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이전과 지식재산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각 분야 기업의 기술적 요구를 대학 연구진과 연결하는 매칭 시스템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지식학 협력 얼라이언스 소통을 맡게 될 GAIA 센터는 산업체 협력 문제를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대형연구단과 GRRC(지역협력연구센터), 기술지

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소통은 'GAIA-LINK' 플랫폼으로 실현되며 이는 산업체, 연구기관, 지자체, 대학이 협업하는 형태의 얼라이언스로, AI·반도체·양자 기술 등 분야별 기업과 학과, 연구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GAIA-LINK 내실화를 위해 GAIA 센터는 '경희 얼라이언스 회원사 제도'를 운영하며 참여 기업에 장비 지원, 협업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한다.

홍 단장은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이 얼라이언스 하에 서로 협력해 기업들은 회원사 제도로서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애로기술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해결을 하자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창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판교VI(Venture Incubating) 캠퍼스는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창업기업 육성 핵심 거점이다.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과 연계된 'Gx7 Up 창업육성 프로그램'은 기술 기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장학금, 창업 마이크로디그리, 디지털 배지 발급 등 전주기 창업 지원을 제공한다.

홍 단장은 "판교 VI 캠퍼스는 오

는 9월에 개설하는데,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인 '솔브레인' 측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며 "학생, 또는 교원이 창업을 원하면, 사용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캠퍼스】

서울캠퍼드 RISE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에 선정돼 서울 동북권을 혁신과 균형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 실천 전략을 가동한다. 특히 AI, 바이오, 창조산업 등 서울시 전략 산업과의 연계 중심으로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 글로벌 인재 육성, 평생학습 체계 고도화 등 총체적인 지역혁신 모델을 추진한다.

서울캠 RISE 사업단은 '대학과 함께하는 글로벌 미래혁신도시-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단위 과제로 서울 전략 산업과 대학의 강점을 긴밀히 연계한다. 서울캠은 의·치·한·약 계열을 모두 보유해,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중심 기관으로서 제약·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천연물 소재 등 바이오 기반 기술 개발에 강점을 보인다. 이러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연구실(K-Lab)에 'K-Lab Intense Care(KLIC)'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술이전, 창업, 국

제표준화 등 맞춤형 트랙으로 지원한다.

서울 RISE 추진단 박재홍 부단장(교수, 경영학)은 KLIC 프로그램에 "연구실 내에서 AI나 바이오 등 서울시가 주력하는 전략 사업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사업화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수 연구실 집중 지원 프로그램(KLIC) ▲AI 혁신 ICC(기업협업센터) 설립 ▲S-클러스터 연계형 교육과정 등을 추진한다.

서울 RISE 사업단은 글로벌 기술이전 마케팅 프로그램(KHU Global Tech Marketing), 창업 육성 프로그램(B.I.G) 등을 통합 운영하며 기술 실용화와 창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박 부단장은 "국제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글로벌 마케팅 역량은 필수"라며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마케팅 업체와 연결해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또한 'AI 혁신 ICC(서울형 기업협업센터)'를 신규 설립해 'KHU ABC ICC'를 활성화한다. 이는 우리학교 3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미래과학, 바이오헬스, 문화예술에 기반한 기존 특화 ICC 5개에, 신규 AI 혁신 ICC를 더해 KHU ABC-ICC 브랜드 화 및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한 수익

창출을 꾀한다.

박 부단장은 "예를 들어, 패션의상 ICC 센터는 의상학과 교수님, 동대문구 봉제산업 협회와 협업해 봉제 산업체에게 자문하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며 "3D 프린트 등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컨설팅해 줌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울시 전략산업 클러스터에 맞춘 지식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S-클러스터 연계형 교육과정(Track 제도)'을 통해 전공별 산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공동 운영 및 비교과 연계를 추진 중이다. 또한, 학내 우수 캡스톤디자인 문화를 '챔피언스LIG'로 브랜드화해 지역 연계형 프로젝트로 확장하고 있다.

현장실습도 강화된다. 2024년 기준 전국 3위 수준의 실습 운영 실적을 보유한 우리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현장GO'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사회진출 지원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박 부단장은 "중간 평가를 앞두고 산학협력, 기술개발과 학생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사업 후에도 기술 단계가 최고치로 올라가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